

2021년 한국융연구원 연구과제 공개특강

C.G.Jung의 종교사상과 기독교

2021년 4월 13일~ 27일, 매주 화요일, 3주간
오후 7시 ~ 10시 (10분 휴식시간 포함)

강사

김성민 (월정 분석심리학연구소)

등록
기간

3월2일(화) ~ 3월 31일 (수) 17:00 까지
선착순 50명

등록 마감 후 취소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.

등록 마감 후 미입금자는 자동 취소됩니다.

▷▷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◁◁

<https://forms.gle/njizuu3urLJEDSja6>

등록비

30만원

(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.)

3번의 강의를 나누어 등록할 수 없습니다.

유의 사항

-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오.
- 계좌번호는 신청서 내 안내됩니다.
- 이메일로 zoom 접속 주소가 발송됩니다.
- zoom 설치, 가입 해주십시오.
- 등록 마감 후 등록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.
- 마감 후 미입금자는 자동 취소됩니다.

문의

cgjungkorea@naver.com

특강 담당자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.

4월 13일 (화)

제 1강: 신의 권위시대와 그노시스

현대 사회의 무신론적 풍토를 응은 신의 권위시대라고 했는데, 응은 영지주의자들에게서 진정한 신의 추구를 보면서 그 자신의 신화를 살았다.

참고문헌

K. Rudolph, Gnosis, New York: Harper & Row, 1987.

A. Ribi, The Search for Roots, Salt Lake City: Gnosis Archive Books, 2013.

4월 20일 (화)

제 2강: 무의식과 종교상징

종교적 표현과 예술적 표현은 꿈이나 신화처럼 상징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으며, 상징이 상징으로 해석되는 순간 사람들에게 “신비적 융합”을 하게 하면서 변환을 가져온다.

참고문헌

김성민, 『기독교영성의 추구하고 분석심리학』, 서울: 달을 걷는 우물, 2020. pp.48-74.

4월 27일 (화)

제 3강: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와 분석심리학

신비가 에크하르트는 신(Gott)과 신의 본체(Gottheit)를 구분하면서,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에서 초탈할 때, 돌파가 일어나면서 영혼의 근저에서 신이 탄생한다고 주장하였다.

참고문헌

김성민, 『기독교영성의 추구하고 분석심리학』, 서울: 달을 걷는 우물, 2020. pp. 104-138.